

추억의 찌빵

김원구 산행수필가 · 한곡식품연구소원



퇴근길에 한 가지 버릇이 생겼다. 그것은 다름 아닌 몇 해 전 겨울 무렵부터 퇴근길 도로변에 찢빵과 찢만두집이 문을 열었는데 찢빵집 앞에서 그것들을 사기 위해 줄지어 서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차창을 통해 훑쳐보면서 귀가하는 버릇이다. 퇴근길에 찢빵과 찢만두를 사서 들고 가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얼굴을 그려보면서 그들은 참으로 따스한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갖고 귀가 하는 것 같아 덩달아 나도 기쁜 마음으로 퇴근을 하고 있다. 그러나 나에게 찢빵과 찢만두에 대한 아픈 기억이 있다. 아내가 첫 아이를 분만하기 위해 병원에 있을 때 남문 근처 어딘가에 있는 찢빵과 찢만두를 사다 달라는 부탁을 들어주지 못한 아픈 추억이 있다.

올해는 103년 만에 많은 눈이 내렸다고 한다. 산과 들녘을 하얗게 덮고 있는 눈을 보고 있노라면 마음이 따스해진다. 생전에 하얀 저고리를 즐겨 입으시던 어머니가 생각났기 때문이다. 어머니의 새하얀 저고리와 들녘을 하얗게 덮고 있는 눈을 보면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찢빵이 생각난다. 어릴 적 가끔 어머니가 만들어 주시던 찢빵은 가장 맛있는 간식 중의 하나이다. 무엇보다도 모락모락 피어나는 김을 보노라면 가슴이 설레어 온다. 산과 들녘에 수북하게 쌓인 눈처럼 하얀 찢빵에는 어머니의 사랑이 녹아있고 내 마음을 평온하게 해주는 마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찢빵이야 오늘날 전국 어디를 가나 쉽게 사서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찢빵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안홍 찢빵을 꼽지 않을 수 없다. 안홍은 영동 고속도로가 개통되기 전에 서울과 강릉 간 필수적으로 통과해야 하는 중간지점이다. 따라서 서울에서 출발하던 강릉에서 출발하던 4시간 정도 달려오면 안홍에 와서 점심 식사를 하지 않고는 그냥 지나칠 수 없다고 한다. 그렇게 먼 길을 떠나는 나그네에게 허기진 배를 채워주는 찢빵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고 한다. 오늘날 안홍 찢빵 마을에서 안홍 찢빵 협회를 만들어 브랜드화를 위해 공동의 상표도 만들었다고 한다.

찢빵을 연상하면 항상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색이 떠오른다. 그러나 안홍 지역의 인근인 황둔 마을에선 하얀색 찢빵의 개념을 바꾸고 있다. 붉은색, 옥색, 노란색 등 하얀 찢빵에서 울긋불긋한 색깔의 찢빵으로 진화하고 있다.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고 하얀 찢빵보다 색깔 있는 찢빵에 먼저 손이 가게 된다. 안홍 지역에선 밀가루와 팔



찐빵을 연상하면 항상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색이 떠오른다. 그러나 안흥 지역의 인근인 황둔 마을에선 하얀색 찐빵의 개념을 바꾸고 있다. 붉은색, 옥색, 노란색 등 하얀 찐빵에서 울긋불긋한 색깔의 찐빵으로 진화하고 있다.

으로 찐빵을 만들고 있는 반면에 황둔 지역에선 밀가루에 쌀가루(홍미), 옥 가루, 호박 등을 넣어 색깔 있는 찐빵을 만들어 내고 있다.

더 나아가 전북 부안의 우리 밀 부안 찐빵 김갑철 대표는 찐빵에 각종 재료를 넣어 야채 찐빵, 복분자 찐빵, 오디 찐빵, 흑미 찐빵, 민들레 찐빵 등 빛깔도 다양하게 화려하고 먹음직스러운 찐빵을 개발하였다. 찐빵의 원조라 할 수 있는 안흥 지역에 못지 않은 명성과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한다. 또한 김갑철 대표 부부는 전통 찐빵을 지키는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생활한복을 입고 찐빵을 만든다고 한다. 안흥에서 만드는 찐빵은 찐빵을 만들어서 발효시키지만 우리 밀 부안 찐빵은 미리 반죽해서 발효시키는 전라도식 찐빵을 접목시켜 독특한 맛을 내는 찐빵을 탄생시켜 신기술로 인정받았다. 이러한 신기술로 2009년 6월 한국신지식인협회에서 수여하는 자영업 분야의 자랑스러운 신지식인으로 선정되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찜빵은 어릴 적 기억 속의 풍경을 떠올리게 한다. 호호 불어기며 나눠 먹던 찜빵 속에 단순한 먹거리가 아닌 추억과 향수가 담겨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찜빵은 어릴 적 기억 속의 풍경을 떠올리게 한다. 호호 불어기며 나눠 먹던 찜빵 속에 단순한 먹거리가 아닌 추억과 향수가 담겨있다. 매일 퇴근 길에 찜빵집 앞에서 스치어 들어오는 차창을 통하여 찜빵을 사는 사람들의 얼굴을 훑어보는 것이 내 삶의 일부가 되었다. 따스한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그들의 얼굴을 보면서 퇴근을 하면 나도 덩달아 그러한 마음으로 스며드는 것 같다. 병원에서 아내가 찜빵과 찜만두를 먹고 싶어 했는데 여러 가지 일로 들어주지 못한 것이 지금껏 후회되고 있다. 그때 찜빵과 찜만두를 먹지 못하고 태어난 우리 집의 큰 애 여진이가 대학을 졸업하여 직장에서 일을 시작한지도 여러 해가 지나고 있다. 돌이켜보면 많은 시간이 흘러갔고 새삼 세월의 빠름을 실감하게 된다. 그때의 아픈 기억을 아름다운 추억으로 만들기 위하여 요즘은 가끔 추억의 찜빵과 찜만두를 사두고 귀가하고 있다.